

한국인 관광객 구해준 부부 방한 초청



▲ 알렉산더 캠퍼나씨 부부(왼쪽에서 3·4번째)에게 한국 여행을 선물한 한국관광공사 박재석 뉴욕지사장(왼쪽 두번째), 사진=한국관광공사

지난해 12월 뉴욕주 북서부 폭설 사태 당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구해준 미국인 부부(관련 기사 본보 1453호 '폭설로 고립된 한국 관광객, 집 내준 주민과 제육볶음 파티')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 여행을 선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뉴욕주 버펄로 인근에서 폭설에 갇힌 한국인 관광객 9명

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준 알렉산더 캠퍼나 씨 부부를 한국에 초청했다. 이들 부부는 오는 5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을 여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뉴욕타임스(NYT)는 곤경에 처한 한국 관광객들을 2박 3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대피하도록 하고 한국 요리도 해준 이들 부부의 사연을 보도했다. 당시 캠퍼나 씨 부부의 도움을 받은 최요섭 씨는 "캠퍼나 씨 부부와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는 행복했고 행운이었다." 고 말했다.

이번 초청을 통해 캠퍼나 씨 부부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한국 관광객 9명과 재회하고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또, 한국 음식 쿠킹 클래스와 K뷰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박재석 관광공사 뉴욕지사장은 "위기에 처한 한국인들을 구해준 미국인 부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초청한 것" 이라면서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널리 알리고 싶다." 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직업훈련 실업자에 2,500달러 지원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최대 2,500달러까지 무상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년 전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의 직업훈련 비용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5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집행한 지원금 규모는 약 5% 정도에 머물고 있다.

'Golden State Education And Training Grant Program'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발생 이후 실업자가 된 캘리포니아주 주민이 자격을 갖춘 기관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테이트와 UC계 대학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교육 받고 있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1인당 2,500달러까지 무상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을 비롯해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sac.ca.gov/golden-state-education-and-training-grant-gset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이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대학생 '홍보대사' 를 모집한다.

자격은 커뮤니티 칼리지나 캠퍼스테이트, UC계 대학에서 불과 가을학기엔 최소 1유닛 이상 등록한 18세 이상 학생이다. 홍보대사로 선정되면 월 10~12시간을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직업훈련 보조금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1차 활동 기간인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면 1,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2차 활동 기간인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홍보대사로 활동하면 2,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지원 기한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foundationccc.jotform.com/2307360198598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서 '친북 심포니' 공연 ... 항의 시위도



▲ 친북 성향 우크라이나 공연이 열린 뉴욕 카우프먼 뮤직센터 앞에서 항의시위중인 한인들, 사진=연합뉴스

뉴욕 한복판에서 친북 성향 교향악단의 공연이 또 열려 탈북민과 일부 한인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미 교향악단인 '우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교향악단)는 전날 뉴욕 맨해튼 카우프먼뮤직센터 머킨홀에서 '꽃피는 4월의 봄'이라는 주제로 128차 콘서트를 열었다. 친북 성향 재미 음악인 리준무(미국명 크리스토퍼 리) 씨가 이끄는 우크 심포니는 매년 2~3회 머킨홀에서 정기 공연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 사이에 북한 찬양 음악을 슬쩍 끼워 연주한다.

미리 공개된 이날 레퍼토리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라 트라비아타'의 '아리아' 등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들이지만, 이번에도 중간에 친북 성향 음악을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난 2016년 9월 공연에서 '발길음' 등 북한 노래 3곡을 끼워 넣은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서 크게 기사화한 바 있다.

공연장 앞에서는 국제탈북민인권연대 마영애 대표 주도로 뉴욕 재향군인회, 뉴욕·뉴저지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 구국동지회, 이승만·박정희 기념회 등 50명 이상이 모여 친북 음악회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도 벌였다.

마 씨는 "인권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아직도 북한 찬양 연주회가 열린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며 "공연장에 들어가려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찬양 음악회'라고 알려주니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